

한·중 대조를 통해 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요청 화행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학교생활에 쓰인 부탁 행위를 중심으로-

손 욱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력을 비교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차이를 찾고,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사회적 지위와 친밀도를 요청 화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삼고, 담화 완성 테스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통계 결과를 통해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가 화행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청자 간에 친밀도가 높을 때,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화자가 쓰는 말의 공손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상위자나 하위자보다는 자신과 지위가 같은 사람에게 쓰는 말의 공손성이 더 낮다. 요청 화행 전략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저, 저기요'와 같은 호출어를 거의 쓰지 않고, 요청 화행 완화 장치인 '-ㄴ까'의 사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요청 화행에서 사과 표현을 자주 쓰는 동시에 때로는 감사 표현도 함께 사용한다. 이는 모국어 언어 전이 현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요청 화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친밀도, 사회적 지위, 담화 완성 테스트

* 본고는 2019년 12월 7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224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조언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의 비교를 통해 각 집단의 요청 화행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전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표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강현화(2007)에서는 지시적 화행(본고의 요청 화행)을 먼저 요청과 지시로 나누고, 요청은 또 다시 부탁, 초대, 제공, 제의로, 지시는 명령과 권고(제안)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요청 화행은 부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부탁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강현화(2007: 11)에 따르면 부탁의 행동주체는 청자이고, 화자가 청자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화자가 수혜를 받는 행위이다.

요청 화행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요청을 실현할 때 상대방에게 주는 체면 위협을 최소화해야 한다. Brown & Levinson (1987: 7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체면 위협 행위의 강도나 비중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요소는 주로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 상대적인 힘, 그리고 강요의 절대적 순위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사회의 거리, 즉 친밀도와 상대의 힘, 즉 사회적 지위를 화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삼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어학계에서는 한·중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는 연구로는 이명희(2010), 채춘옥(2015), 임나(2019) 등이 있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Chu Wen Bo(2011), 동신상(2011), 황정혜(2018), 소남(2019), 이정화(2019가, 나) 등이 있다. 전자는 한·중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두 언어의 요청 화행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들이고, 후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쓰는 요청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이다.

황정혜(2018), 이정화(2019나)와 같은 연구는 사용 전략의 차이를 위주로 밝히고,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Chu Wen Bo(2011), 동신상(2011), 소남(2019) 등과 같은 연구에서는 차이가 나는 원인을 언급하였는데, 주로 ‘모국어 전이’, ‘학습자 인식 부족’, ‘한·중 문화 차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실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요청 화행 전략 자체에만 집중하였고, 각 전략을 실현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쓰는 언어 표현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다. 동신상(2011)에서는 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주화행에서 쓰는 언어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원인을 거의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정일함(2016)에서는 주화행의 언어표현만 분석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시-’와 ‘-ㄱ까요’를 쓸 때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화행뿐 아니라 시작하는 말 등의 기타 언어 표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요청 화행 사용 양상의 차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간에 나타난 차이와 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각 전략이 쓰이는 비율의 차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전략을 실현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사이의 차이도 중요시한다. 같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쓰는 언어 표현에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요청 화행의 교육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요청 화행의 조사 및 분석

1. DCT 조사

DCT(담화 완성 테스트)는 특정 화행 양상을 살펴볼 때 피험자에게 담화 형식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형식으로 진행된 테스트이다. Blum-Kulka (1982)에서는 이런 조사 방법을 화행 연구에 적용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제2언어로 습득한 영어 모어 화자와 히브리어 모어 화자의 화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방법의 주요 장점은 같은 문맥에서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Blum-Kulka 1982: 54). 또한 이러한 조사 방법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쓰는 구어와 가까운 연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 KNS) 15명,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 CKL) 20명, 중국어 모어 화자(Chinese Native Speaker, CNS) 15명, 총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DCT 조사를 진행하였다.¹⁾ 피험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표 1> 본 조사에 참여한 피험자의 기본 정보

		한국어 모어 화자 (KNS)	중국어 모어 화자 (CKL)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CNS)
연령 ²⁾	18-25세	2	11	12
	26-30세	13	4	4
	30세 이상	-	-	4

1)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 뒤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KNS), 중국어 모어 화자(CNS),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L)의 명칭은 모두 영어 약자로 쓰기로 한다.

2)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연령대 피험자 수의 차이가 보인다. 그런데 모든 피험자는 이미 대학교 졸업하고, 학교생활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대 차이는 연구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어 모어 화자 (KNS)	중국어 모어 화자 (CKL)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CNS)
성별	남	7	3	5
	여	8	12	15
TOPIK 급수	5급	-	-	2
	6급			18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	3년 이하			2
	3-5년			16
	5년 이상			2
한국 체류 기간	1-2년			15
	2년 이상	5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든 피험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 수준이기에 한국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모든 피험자는 최소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 문화와 한국 학교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질문지에서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총 6개 상황을 피험자에게 주고 이 상황에서 할 말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³⁾ 친밀도 정도를 친함(+)과 친하지 않음(-)으로 나누었고, 사회의 지위를 화자보다 높은 지위(+), 화자와 같은 지위(=), 화자보다 낮은 지위(-)로 나누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 변인들에 따라 세 집단의 피험자들이 사용하는 요청 화행의 특징이 무엇인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3)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부담의 크기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다. 부담의 크기도 화행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변인은 본고의 결과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이루어지는 비교는 주로 같은 상황에서 세 집단 피험자가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의 차이 및 KNS와 CKL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차이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같은 상황은 세 집단 피험자에게 거의 비슷한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부담의 크기는 이러한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표 2〉 본 조사의 상황 설계

친밀도	지위	상황 설정
1	+	+ 친한 선배에게 선배가 힘들게 구한 자료를 달라고 부탁하기
2		= 친구에게 창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기
3	-	친한 후배에게 과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기
4	-	+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토론 시간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기
5		= 도서관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책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기
6		-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펜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기

2. 데이터 분석 방법

Blum-Kulka 외(1984: 200)에서 화행을 분석할 때 화자의 발화를 주로 호칭어, 주화행, 보조 화행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도 이 분석 방법에 따라 세 집단의 요청 화행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예를 통해 시작하는 말, 주화행, 보조 화행의 구분을 살펴보겠다.⁴⁾

- (1) 가. [영희야], 혹시 학교면 사무실에서 뭐 좀 받아와 줄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나. [철수 형], 저 진짜 미안한데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혹시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 (2) 가. [晓丽], 我有份材料去取, 可是人没在咱们学校, 能拜托你帮我取一下吗? ([효려야], 내가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학교에 없어. 나 대신 받아줄 수 있어?)
나. [晓丽学姐], 有个事儿想拜托您, 我现在在找某某材料, 真的是找不到呀, 听说您好像有, 方便发我吗? ([효려 언니], 부탁하게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언니가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4) 한국어에서 말을 시작할 때 호칭어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저, 저기요’와 같은 호칭이 아닌 호출어도 많이 쓰인다. 이에 본고는 호칭어와 호출어를 묶어 ‘시작하는 말’로 표현하기로 한다.

최근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가 많아지고, 동신상(2011), 황정혜(2018), 소남(2019) 등 논의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요청 화행에서 쓰인 여러 전략과 표현을 밝혔다.

본고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요청 화행을 분석할 때 시작하는 말, 주화행, 보조 화행 3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동신상(2011), 소남(2019)와 같은 연구에서 시작하는 말을 보조 화행에서 포함시키고 분석하였는데, 시작하는 말에서도 자세히 분석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 특히 주화행의 분석틀을 살펴보면 주로 Blum-Kulka 외(1984)와 Trosborg(1995)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르고 한국어 표현에 맞게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연구들의 분석틀이 비슷하다. 특히, 본고는 전략 그 자체보다는 전략을 실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 표현에 더 주목하며, 지면상의 관계로 분석틀 설정에 대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틀을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시작하는 말, 주화행, 보조 화행의 하위분류를 다음 <표 3>에서 <표 5>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요청 화행의 DCT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표 3> 한·중 요청 화행에 나타난 시작하는 말 유형

	한국어 예시	중국어 예시
이름	A야, A씨	이름 그대로 부름 (小明, 晓丽)
신분 호칭	선배, 선배님	前辈, 学长, 学姐 ⁸⁾
친족 호칭	형, 언니	哥哥, 姐姐
통용 호칭	선생님 ⁹⁾	同学 ¹⁰⁾
특수 호칭 ¹¹⁾	-	北鼻(baby), 宝宝
복합형 호칭 ¹²⁾	영희 언니, 철수 형	晓丽学姐, 明哥
호출어	야, 저, 저기	哎, 喂

라. 청자의 행위에 대한 예측 예: -어 주시겠습니까?

마. 요청 내용에 대한 청자의 허락 예: -어도 되나요?

〈표 4〉 한·중 요청 화행에 나타난 주화행 전략 유형

분류	화행 전략	한국어 예시	중국어 예시	
직접 화행 전략 ¹³⁾	명령형	-(으)세요	给-, 帮-	
	수행형	부탁하다, -기를 바라다	请-, 拜托-, 麻烦-	
	의무형	-아/어야 하다	必须+得, 应该-	
간접 화행 전략	소망 표현	-고 싶다, -려고 하다	想-, 希望-	
	제안 표현	-(으)면 좋겠습니다.	-怎么样? -어조사‘吧’ 사용	
	예비 조건 언급	의향 확인	-(으)니까요? -(으)니까요?	-好不好?/好吗?
		가능성 확인	-(으)리 수 있어요?	-能不能?/能吗?
	허락 묻기	허락 묻기	-아/어도 돼요?	-行不行?/行吗? -可不可以?/可以吗?
		암시	특정한 표현이 없음.	특정한 표현이 없음.

- 8) 한 심사위원께서는 ‘学姐의 姐도 일종의 친족어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다. 본고에서는 ‘学姐’를 ‘신분 호칭’으로, ‘姐(姐)’를 ‘친족 호칭’으로 보는 이유는 ‘学姐’는 ‘언니’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배’라는 신분도 같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여자 선배를 부를 때 ‘学姐’라고 하는 반면, 남자 선배를 부를 때는 주로 ‘学长’라고 한다. 그러나 ‘学长’의 ‘长’은 친족어가 아니다. 만약 ‘学姐’는 친족 호칭으로 보고 ‘学长’은 ‘신분 호칭’으로 보면 두 호칭의 범주는 비대칭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学姐’를 ‘친족 호칭’이 아닌 ‘신분 호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 9) 일반적으로 그리 친하지 않은 선배나 후배, 혹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때로 쓰는 호칭어이다.
- 10) ‘同学(동학)’은 신분을 가리킬 수 있는데 학교생활에서 모르는 학생에게 ‘同学’이라고 하기 때문에 ‘통용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 11) 李軍·宋燕妮(2004)에서 이러한 부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 논의에 따르면 중국어 주목받기 체계(본고의 ‘시작하는 말’에 해당)는 먼저 호칭어와 제시어로 나누었고, 호칭어에서 다시 이름, 친족 호칭, 직함, 통용 호칭, 대명사, 특수 호칭, ‘的’의 관형절로 나누었다. 또한 제시어는 다시 감탄 성분과 제시/강조 성분으로 분류하였다.
- 12) 여기서 주로 ‘이름+친족어’와 ‘이름+선배’의 형식을 가리킨다.
- 13) 직접 화행은 문장 유형과 발화수반력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Huang 2014: 137). 예컨대 의문문은 의문의 발화수반력을 가지고 있고 명령문은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가지고 있다. <표 4>에서 제시한 ‘의무형’의 경우, 문장 유형은 서술문이지만 발화수반력은 명령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직접 화행에 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고에서의 직접 화행은 넓게 보아, 이를 직접적으

〈표 5〉 한·중 요청 화행에 나타난 보조 화행 전략 유형¹⁴⁾

하위유형	한국어 예시	중국어 예시
인사말	안녕. 안녕하세요.	你好.您好.(안녕/안녕하세요.)
사전 확인	혹시 시간 괜찮아?	你有时间吗? (혹시 시간이 있어요?)
이유 제시	내가 학교를 못 가서 그러는데 저기 과사 가서 나 서류 하나만 좀 대신 받아 주면 안 돼?	我有点事在外面, 你能不能帮我拿份材料? (내가 일이 있어서 밖에 있는데 혹시 자료 좀 받아 줄 수 있어?)
상대방 고려	혹시 학교면 사무실에서 뭐 좀 받아와 줄 수 있을까?	如果你有空, 能麻烦你帮我取一下吗? (시간이 있으면 자료 좀 받아 줄 수 있어?)
사전 요청	뭐 부탁할 게 좀 있는데...	有件事我想麻烦你一下 (부탁할 게 있어.)
사과	미안해요.	不好意思 (죄송한데)
감사	감사합니다.	谢谢(감사합니다.)
보답 약속	밥 사줄게	回来请你喝奶茶。(돌아와서 밀크티를 사 줄게.)
설명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听说您之前找到一份材料叫○○ (언니가 ○○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고 들었어요.)

III. 요청 화행의 DCT 조사 결과 분석

1. 청자가 화자의 상위자일 때

이 절에서는 화자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시작하는 말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로 요청을 표현하는 화행으로 본다. 이 때문에 의무형과 같은 경우도 일종의 직접 화행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4) <표 5>에서 주로 본 조사에서 출현한 유형을 위주로 제시한다. 요청을 진행할 때 이보다 더 풍부한 보조 화행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

<표 6> [상위]일 때 친밀도에 따른 시작하는 말 전략 양상

분류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이름	-	-	-	-	5%	13.3%
신분 호칭	26.7%	65%	40%	26.7%	65%	40%
친족 호칭	26.7%	-	-	26.7%	-	-
통용 호칭	-	5%	-	-	5%	-
복합형 호칭	46.7%	30%	53.3%	46.7%	25%	46.7%
호칭 없음	-	-	6.7%	-	-	-
합계	100.1% ¹⁵⁾	100%	100%	100%	100%	100%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 집단 화자가 쓴 호칭어에 있어 친밀도와 상관없이 매우 비슷한 양상이 나왔다. 주로 신분 호칭과 복합형 호칭이 많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NS와 CNS는 복합형 호칭을 더 선호하는 반면, CKL은 신분 호칭을 더 선호한다. 또한 CNS는 신분 호칭도 많이 쓸 수 있다. 나아가 KNS가 쓰는 친족 호칭은 CKL과 CNS 중에서 한 명도 쓰지 않았다.

중국어로 선배를 부를 때에는 ‘언니, 형’과 같은 친족 호칭을 거의 쓰지 않고, ‘学姐, 学长(한국어의 ‘학형’과 비슷한 말)’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姐姐, 哥哥’와 같은 친족 호칭은 아직 주로 친족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사회생활에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¹⁶⁾ 따라서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CKL은 한국어를 사용할 때 ‘언니, 형’ 등 친족 호칭에 비해 신분 호칭인 ‘선배’나 ‘선배님’을 더 자주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선배’와 ‘선배님’의 사용에 있어 KNS와 CKL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KNS는 주로 ‘선배’를 쓰고, CKL은 주로 사람을 높여주는 접미사 ‘-님’이 붙은 ‘선배님’을 쓴다. 특히 KNS는 친하지 않은 선배에

15) 계산할 때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0%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뒤에 99.9%도 나올 수 있다.

16) 지역 차이와 개인 차이가 있기도 하다.

게도 거의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배’라고만 부른다.¹⁷⁾ 반면에 CKL은 친한 선배든, 친하지 않은 선배든 모두 ‘선배님’으로 부른다. 실제 한국 학교생활에서 사람이나 학교 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친한 선배라면 ‘선배님’을 쓰지 않고, ‘선배’로 부른다. 보통 나이 격차가 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배님’을 쓴다.

다음으로 <표 7>을 통해 주화행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7> [상위]일 때 친밀도에 따른 주화행 전략 양상

분류	화행 전략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간접 화행 전략	소망 표현	-	-	13.3%	-	-	-	
	제안 표현	-	-	-	-	-	6.7%	
	예비 조건	의향 확인	-	10%	20%	13.3%	5%	13.3%
	가능성 확인	80%	60%	40%	60%	50%	46.7%	
	언급	허락 묻기	13.3%	20%	13.3%	20%	40%	26.7%
	암시	6.7%	10%	13.3%	6.7%	5%	6.7%	
합계		100%	100%	99.9%	100%	100%	100.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상위자에게 말할 때 세 집단의 화자가 모두 직접 화행 전략을 쓰지 않고, 간접 화행 전략에서 예비 조건 언급 전략을 가장 많이 쓴다. 그리고 ‘허락 묻기’나 ‘의향 확인’에 비해 ‘가능성 확인’을 세 집단 화자들이 모두 선호한다. 또한 친밀도에 따라 택한 화행 전략도 비슷하고, 주로 ‘예비 조건 언급’을 쓴다.

그러나 모두 선호하는 전략이라도 KNS와 CKL이 ‘가능성 확인’이나 ‘허락 묻기’에서 쓰는 의문문 양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

17)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배’나 ‘선배님’을 쓰는 피험자는 8명이고, 그중에서 ‘선배님’을 택하는 피험자는 2명밖에 없다.

- (3) 가. 영희 언니, 죄송한데 이 자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KNS 7)
나.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료를 빌려도 될까요? (KNS 6)
- (4) 가. 철수 형, 미안한데 혹시 수업 때 언급했던 그 자료를 좀 빌릴 수 있나요? (CKL 13)
나. 실례하지만 저 빌려도 되나요? (CKL 4)

(3)은 KNS의 예이고, (4)는 CKL의 예이다. (3)과 (4)의 차이는 가능성이나 허락 여부를 물어보는 용법 뒤에 의향 표현 ‘-ㄴ까’를 붙이는가 하는 것이다.

강영리(2016: 4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ㄴ까’는 화자가 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언어적 전략이고, 이러한 용법은 의향 용법에서 확장해 온 것이다. 즉 원래 의향 용법이었던 ‘-ㄴ까’는 의문문에서 허락 표현이나 가능성 표현 등과 결합하여 화자의 요청을 청자가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CKL은 ‘-ㄴ 수 있을까요’를 비롯한 표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¹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친밀도가 높을 때 KNS가 ‘-ㄴ까’를 쓰는 비율은 64.3%(14명 중 9명 사용)인 반면, CKL이 ‘-ㄴ까’를 쓰는 비율은 25%(16명 중 4명 사용)이다. 한편 친밀도가 낮을 때 KNS가 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83.3%(12명 중에 10명 사용)이지만, CKL이 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22.2%(18명 중에 4명 사용)이다. 이에 따라 친밀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고, CKL에게 ‘-ㄴ 수 있을까요’나 ‘-어도 될까요’와 같은 가능성 표현이나 허락 표현 뒤에 의향 표현인 ‘-ㄴ까’가 붙는 형식이 의

18) 정일함(2016: 67-8)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공손성 표현으로 쓰인 ‘-ㄴ까’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중국어에서 종결어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종결어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학습자가 ‘-ㄴ까’의 용법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만약 학습자들은 모든 종결어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는 중국어에서 종결어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종결어미와 달리 ‘-ㄴ까’의 공손성 용법만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ㄴ까’의 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속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의향 표현과 가능성 표현이나 허락 표현이 같이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러한 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본다.¹⁹⁾

마지막으로 아래 <표 8>을 통해 세 집단의 피험자가 사용하는 보조 화행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자. 보조 화행 전략을 분석할 때 한 피험자가 응답한 내용 중에 중복하여 쓰는 보조 화행 전략이 있다면 하나로 처리한다.

<표 8> [상위]일 때 친밀도에 따른 보조 화행 전략 양상²⁰⁾

유형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인사말	-	30%	53.3%	-	15%	40%
사전 확인	-	5%	33.3%	-	5%	13.3%
이유 제시	20%	65%	86.7%	80%	90%	93.3%
상대방 고려	13.3%	10%	6.7%	26.7%	5%	6.7%
사전 요청	-	20%	26.7%	-	5%	6.7%
사과	33.3%	40%	26.7%	60%	65%	80%
감사	-	15%	40%	-	10%	6.7%
보답 약속	6.7%	15%	6.7%	-	-	-
설명	6.7%	5%	-	6.7%	5%	20%
기타 ²¹⁾	-	30%	53.3%	6.7%	5%	-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집단이 가장 많이 쓰는 보조 화행 전략은 ‘이유 제시’와 ‘사과’이다. 그리고 KNS에 비해 CKL과 CNS는 ‘인사

19) 중국어의 의향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好不好?/好吗?’이고, 가능성 표현과 허락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각각 ‘能不能?/能吗?’와 ‘可不可以?/可以吗?’이다. 이 때 이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로만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 요청 화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오히려 합치면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따라서 두 가지 표현이 같이 쓰일 수 없다.

20) 여기서 계산하는 비율은 해당 보조 화행 전략을 사용하는 피험자가 전체 피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1) ‘기타’라는 유형은 세 집단 답안에서 모두 출현하는 보조 화행 전략 외에 개별 집단에서 보인 보조 화행 전략을 가리킨다. ‘기타’에서 포함한 보조 화행 전략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별 화자가 사용하는 개별 보조 화행 전략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말’이나 ‘사전 확인’을 더 많이 씀을 볼 수 있다. 또한 KNS에 비해 CKL이나 CNS가 쓰는 보조 화행 전략의 수가 많고, 쓰는 전략의 종류도 많다. 동신상(2011: 47)에서 밝힌 바와 같이 CKL의 이러한 경향은 ‘모국어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전이’이다. 중국어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더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동신상 2011: 47).

2. 청자와 화자가 동등한 지위일 때

이 절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을 분석한다. 아래 <표 9>는 화·청자의 친밀도에 따른 시작하는 말 전략의 양상이다.

<표 9> [동등]일 때 친밀도에 따른 시작하는 말 전략 양상

분류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이름	78.6%	100%	80%	-	-	-
통용 호칭	-	-	-	6.7%	15%	40%
특수 호칭	-	-	6.7%	-	-	-
호출어	7.1%	-	-	40%	5%	-
호칭 없음	14.3%	-	13.3%	53.3%	80%	6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세 집단의 화자는 모두 이름을 부르는 방식을 많이 택하였다.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KNS는 이름을 부를 때 모두 ‘이름+야’를 쓰는데 CKL 중에 5명(25%)은 ‘이름+씨’를 쓴다.²²⁾ CKL은 상대방을 존경하기 위해 ‘-씨’를 쓴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친구 사이에 이러한 지나친 존경 표현을 쓰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씨’의 뜻풀이에 따르

22) ‘이름+씨’를 쓴 학습자의 한국 체류 시간을 보면 모두 1년이다. 한국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한국어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면 ‘-씨’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고, “공식적·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가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쓴다”는 것이다. 즉 ‘-씨’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화자 자신의 지위와 동등이나 하위인 상대방에 대해 높이거나 대접하여 쓰는 말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 설정한 상황은 ‘친한 친구에게 창문 열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다.²³⁾ 이는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씨’를 쓰면 오히려 어색하다. CKL이 ‘-씨’를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한국어 교재에서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씨’가 많이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에 KNS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저, 저기’와 같은 호출어를 많이 쓰거나 호칭 없이 인사말이나 사과 표현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CNS는 호칭을 안 쓰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에서 ‘同学(동학/학생)’이란 통용 호칭이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CKL은 호출어를 거의 쓰지 않고, 압도적으로 호칭어 대신에 인사말을 쓰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다.²⁵⁾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중국어에서 ‘저, 저기’, 특히 존대를 표시한 조사 ‘-요’가 붙은 ‘저기요’와 완전히 대응하는 표현이 없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호출어로 쓰이는 표현 ‘喂, 哎’가 있는데, 이들은 한국어의 ‘저, 저기’와 뉘앙스가 다르다. 중국어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호출어 ‘喂, 哎’를 쓰면 예의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 CKL은 호

23)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자세한 상황은 아래와 같다.

설정된 상황: 당신은 친구와 같이 한 방에 있습니다. 방 안에 너무 더워서 당신은 창문을 열고 싶습니다. 마침 친구가 창문 옆에 있어서 친구에게 창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24) 이경숙(2012: 80)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또한 정효진(2015: 96-9)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쓰는 호칭어 양상을 살펴보고, 그는 지적인 바와 같이 일정 정도의 친밀감이 있고, 서로 나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 ‘-씨’를 쓰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씨’ 사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25) 인사말이 많이 쓰이는 것은 뒤에 <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어에 대해 정중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어의 호출어도 많이 쓰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어 교과서에 제시되는 대화는 주로 아는 사람들 간에 나누는 대화들이라, 낯선 사람들 간에 쓰는 호출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은 호출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낯선 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세 집단의 화자가 쓰는 주화행 전략의 양상을 보겠다.

<표 10> [동등]일 때 친밀도에 따른 주화행 전략 양상

분류	화행 전략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직접 화행 전략	명령형	35.7%	20%	20%	-	5%	-
	의무형	-	-	-	-	5%	-
간접 화행 전략	제안 표현	-	-	26.7%	-	-	-
	예비 의향 확인	14.3%	35%	-	6.7%	40%	-
	조건 가능성 확인	42.9%	30%	26.7%	66.7%	45%	46.7%
	언급 허락 묻기	-	15%	20%	-	5%	33.3%
	암시	7.1%	-	6.7%	26.7%	-	20%
합계		100%	100%	100.1%	100.1%	100%	100%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친밀도와 관계없이 세 집단의 화자는 모두 직접 화행 전략보다 체면 위협을 덜 주는 간접 화행 전략을 택한다. 단 친한 사람에게는 직접 화행을 쓰는 경향이 있는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접 화행을 거의 쓰지 않는다.

직접 화행 전략(명령형)에 있어 CKL 중에 ‘창문 좀 열어 주세요’와 비슷한 표현이 발견된다. 이는 명령형이지만 ‘열어줘’에 비해 존댓말이고, 공손성이 더 높다. CKL 중에 ‘창문 열어줘’와 같은 비격식적 반말체를 쓴 피험자는 2명(10%)밖에 없다. CKL은 반말체 명령형의 명령 강도가 너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 친구에게 쓸 수 있어도 아무리 친해도 한국인 친구에게 쓸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유학생에게

화행 전략을 선택할 때 상대방이 중국인인가, 한국인인가도 하나의 영향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CKL은 KNS에 비해 ‘의향 확인’ 전략을 많이 쓴다. CKL은 ‘해 주시겠어요?’란 표현을 많이 쓰고, 이는 ‘해 주실 수 있을까요?’보다 더 정중하고, 공손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 직관으로는 ‘해 주실 수 있을까요?’는 ‘해 주시겠어요?’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다. ‘해 주시겠어요?’는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고, ‘해 주실 수 있을까요?’는 청자가 도와줄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이다. 요청 행위도 일종의 체면 위협 행위이다. Brown & Levinson(1987)에 따르면 적극적 공손성보다 소극적 공손성이 발화의 힘을 더 완화한다. 청자가 의향을 부정할 때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반면, 능력을 부정할 때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CKL은 한국어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KNS와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아래 <표 11>을 통해 세 집단의 피험자가 사용하는 보조 화행 전략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표 11> [동등]일 때 친밀도에 따른 보조 화행 전략 양상

유형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인사말	-	-	-	26.7%	70%	86.7%
사전 확인	7.1%	-	40%	-	5%	6.7%
이유 제시	21.4%	50%	46.7%	46.7%	65%	67.7%
상대방 고려	-	-	-	-	15%	-
사전 요청	-	-	-	-	-	6.7%
사과	14.3%	-	-	40%	20%	-
감사	-	10%	13.3%	-	10%	26.7%
기타	-	-	13.3%	-	-	6.7%

<표 11>을 통해 세 집단의 화자가 ‘이유 제시’를 보조 화행 전략으로 가장 많이 쓸을 알 수 있다. 또한 친구에게 창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할 때 CNS가 ‘你热吗?(너 덥니?)’나 ‘你不冷吧?(너 춥지 않지?)’와 같은

‘사전 확인’의 전략을 많이 씬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책을 찾아 달라고 부탁할 때 중국인들은 ‘인사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데, 한국인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음을 <표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 ‘저, 저 기요’와 같은 호출어가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때 ‘你好/您好’와 같은 인사말을 많이 쓴다. 이때 이러한 인사말은 한국어의 호출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CKL이 호출어를 거의 쓰지 않고 ‘인사말’을 많이 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국어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중국에서 적당히 부를 말이 없을 때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3. 청자가 화자의 하위자일 때

이 절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보다 낮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표 12>를 통해 시작하는 말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자.

<표 12> [하위]일 때 친밀도에 따른 시작하는 말 전략 양상

분류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이름	93.3%	100%	60%	93.3%	70%	33.3%
신분 호칭	-	-	20%	-	-	-
통용 호칭	-	-	-	-	5%	20%
특수 호칭	-	-	6.7%	-	-	-
복합형 호칭	-	-	13.3%	-	-	20%
호칭 없음	6.7%	-	-	6.7%	25%	26.7%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2>에서 제시하였듯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친밀도와 상관없이 세 집단의 화자가 모두

이름을 선호한다. 단,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중국어에서는 한국어보다 쓰이는 호칭어가 더 다양하다. 중국어에서 ‘후배’에 해당하는 호칭어 ‘学弟, 学妹’가 있는데 한국어에서 ‘후배’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대화에서 부르는 말로 쓸 수 있는 호칭어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宝宝, 北鼻(baby)’ 등 사람을 귀엽게 부르는 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호칭어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한편, 친하지 않은 상대방을 부를 때 CKL은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호칭을 쓰지 않는 피험자도 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KNS가 ‘이름+야’를 많이 쓰는 반면 CKL이 ‘이름+씨’를 많이 쓴다.

다음으로 주화행 전략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표 13〉 [하위]일 때 친밀도에 따른 주화행 전략 양상

분류	화행 전략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직접 화행 전략	명령형	6.7%	10.5%	-	-	5%	6.7%
간접 화행 전략	제안 표현	-	5.3%	-	-	-	-
	예비						
	의향 확인	20%	26.3%	-	33.3%	10%	6.7%
	조건						
	가능성 확인	66.7%	47.4%	73.3%	60%	65%	40%
언급							
허락 묻기	6.7%	10.5%	26.7%	-	20%	33.3%	
암시	-	-	-	6.7%	-	13.3%	
	합계	100.1%	100%	100%	100%	100%	100%

〈표 13〉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서는 직접 화행 전략을 쓰는 피험자가 있다. 그러나 화자와 같은 지위일 때 직접 화행 전략을 쓰는 비율보다는 적다. 즉,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보다 자신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직접 화행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 그리고 간접 화행 전략 중에서 가능성 확인이 여전히 많이 쓰인다.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요청 화행 완화 장치로 쓰인

‘-르까’의 사용 양상이다. 직접 화행 전략과 간접 화행 전략의 사용 빈도를 통해 KNS가 주화행 전략을 택할 때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가 전략 선택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친한 친구에게 직접 화행 전략을 쓰는 반면에, 친한 선배에게 직접 화행 전략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이든, 하위이든 모두 직접 화행 전략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라는 요인이 주화행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르까’의 사용 양상을 통해 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아래 (5)는 KNS 피험자 중에 가능 표현이나 허락 표현을 쓰는 피험자 중에서 ‘-르까’를 사용한 피험자의 비율이다.

(5)	상위	동등	하위
[+친]	64.3%	0	36.4%
[-친]	83.3%	40%	55.6%

(5)에서 볼 수 있듯이 친한 사람에 비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완화 장치 ‘-르까’를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있어 상위 사람에게 ‘-르까’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는 하위와 동등 순이다.

Leech(2014)에서는 이가(二價) 공손성 등급(bivalent politeness scale)을 제기하고, 공손성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소는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라고 하였다. 또한 이 요소들을 통해 ‘honorific politeness (경어적 공손성)’과 ‘camaraderie(동지애)’를 나누었다. ‘honorific politeness’과 ‘camaraderie’는 이가 공손성 등급의 양단이다. 이에 따르면 ‘honorific politeness’는 두 사람 간에 사회적 지위와 친밀도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고, ‘camaraderie’라면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든 친밀도에 대해서든 화·청자 간에 차이가 가장 작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화자와 청자가 가장 친밀한 것이다. 그리고 Leech(2014: 23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amaraderie’일 때 친밀한 호칭(familiarizers)이나 애정을 담은 호칭(endearment) 등 친숙하거나 덜 정중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5)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화행에서도 Leech(2014)에서 제시한 ‘camaraderie’일 때 호칭어의 사용 양상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본다. 화자와 청자가 [+친, 동등]일 때, 요청 화행 완화 장치인 ‘-르까’가 쓰이지 않는 반면, 사회의 지위와 친밀도의 차이가 클수록 이러한 완화 장치가 더 많이 쓰인다. 이를 통해 KNS는 상위 사람과 하위 사람에 비해 자신의 지위와 같은 친한 사람에게 부탁할 때 가지는 심리부담감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²⁶⁾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KL은 완화 장치 ‘-르까’에 대해 인식도가 낮다.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동시에 사회 요인에 따른 사용 양상도 같이 알려주면, 학습자들은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표 14>를 통해 보조 화행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표 14> [하위]일 때 친밀도에 따른 보조 화행 전략 양상

유형	[+친]			[-친]		
	KNS	CKL	CNS	KNS	CKL	CNS
인사말	-	5.3%	-	-	5%	40%
사전 확인	13.3%	52.6%	40%	6.7%	-	13.3%
이유 제시	40%	73.7%	80%	33.3%	45%	80%
상대방 고려	26.7%	5.3%	20%	6.7%	-	-
사전 요청	-	31.6%	26.7%	-	-	-
사과	33.3%	31.6%	-	40%	30%	20%
감사	-	10.5%	26.7%	-	5%	46.7%
보답 약속	-	21.1%	26.7%	-	-	-
설명	-	-	6.7%	-	-	-
기타	-	21.1%	6.7%	-	-	6.7%

26) 이정화(2019가: 170-1)에서는 이와 비슷한 결론을 밝힌 바가 있다. 즉, 화자의 지위가 높더라도 간접적으로 요청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간접적인 전략의 사용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예비조건 언급하기’의 사용 비율(화자=청자 28.8%, 화자>청자 45.6%)만으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정화(2019가: 169)에서 제시한 <표 9>를 보면 화자와 청자의 위치가 동등할 때 ‘예비조건 언급하기’ 이외에 다른 간접적인 전략도 많이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집단의 화자가 가장 많이 쓴 보조 화행 전략은 ‘이유 제시’이다. 단, KNS 피험자들이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펜을 빌려 달라고 부탁할 때 ‘사과 표현(40%)’이 쓰이는 비율은 ‘이유 제시(33.3%)’보다 좀 높다.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사과 표현과 감사 표현이다. KNS는 사과 표현을 많이 쓴 반면 CNS는 감사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양상이 전체 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6)	사과 표현의 출현 비율	감사 표현의 출현 비율
KNS	37.1%	0
CNS	21.1%	26.7%
CKL	31.1%	8.4%

(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KNS는 감사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으나, CNS는 이를 많이 쓴다. 또한 CKL은 감사 표현보다 사과 표현을 더 많이 쓰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사 표현도 쓰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가 이 전략들을 쓰는 양상을 보면 한국인이 사과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중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 표현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즉 모국어는 화행 전략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화자가 친한 후배에게 과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받아 달라고 부탁할 때 KNS는 사과 표현만 쓰는 반면에, CNS는 감사 표현만 쓴다. 이때 CKL 피험자 중에서 사과 표현을 쓰는 사람의 비율은 KNS와 가깝고, 일부분 피험자는 KNS가 쓰지 않는 감사 표현도 쓴다. 피험자가 감사 표현을 쓴 이유는 모국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언어·문화적 습관이나 부탁하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상대방에 대해 신세를 진다는 것을 많이 느껴 항상 부탁할 때 사과 표현을 관례적인 표현처럼 사용한다. 또한 전정미(2007), 金廷恩(2010)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감사 표현이 적게 쓰인다. 한국인들은 부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고, 만일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 표현을 넣으면 오히려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화자가 상대방에게서 수혜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어서 일부 경우에는 사과 표현보다 감사 표현 더 어울린다.²⁷⁾

예컨대 친한 후배에게 과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도서관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책을 찾아 달라고 부탁할 때 CNS는 사과 표현을 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CNS는 사과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는 상황은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토론 시간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예외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IV. 결론

본고는 DCT 조사를 통해 KNS, CKL, CNS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쓰는 요청 화행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세 집단이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통계 결과를 보면 친밀도와 사회적 지위가 화행 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피험자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간접 화행 전략을 선택하였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직접 화행

27) 모든 상황에서의 대화는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사과 표현과 감사 표현을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다. 부탁을 하기 위해 하는 말만 검토하는 것이 다소 한계가 있겠지만, 부탁 행위를 할 때 맨 처음에 쓰는 말에 있어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감사 표현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략을 사용하는 피험자도 존재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친밀한 사람에게서는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보다 직접 화행 전략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지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화자가 직접 화행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위와 같은 사람에게 직접 화행 전략을 더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NS의 경우, 요청 화행 완화 장치 ‘-르까’의 사용 빈도를 통해, 상위자와 하위자보다, 자신과 지위가 같은 친한 사람에게 쓰는 말은 공손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요청 화행 전략에 있어 CKL과 KNS의 몇 가지 차이점을 밝혔다. 우선 CKL은 상대방과 예의 있게 대화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에 친한 친구나 후배에게도 ‘A야’를 쓰지 않고, ‘A씨’를 많이 쓴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KNS에게 다소 어색하거나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이는 주로 한국어 교재의 영향을 받아 생긴 차이로 보인다. 또한 CKL은 KNS가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자주 쓰는 ‘저, 저기’와 같은 호출어를 거의 쓰지 않으며 대신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점을 밝혔다. ‘저, 저기’와 같은 호출어를 쓰지 않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 교재에 많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어에서 이와 대응하는 호출어가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인사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이유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주화행 전략에 있어 CKL은 반말체 명령형을 거의 쓰지 않고, 이는 상대방이 한국인이어서 아무리 친해도 명령문을 쓰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CKL은 ‘가능성 표현/허락 표현 + -르까’의 용법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중국어에서 가능성 표현이나 허락 표현은 의향 표현과 같이 쓰이지 못하는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 이외에 보조 화행 전략에 있어 KNS는 감사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사과 표현을 많이 쓰는 반면 CNS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 표현을 쓰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과 표현을 쓰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때 CKL은 CNS와 KNS의 특징을 모두 가진 중간

적 성격을 보이므로, 모국어 언어 전이 현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CKL이 쓰는 요청 화행 전략과 KNS나 CNS가 쓰는 요청 화행 전략의 대조를 통해 두 가지 사회 변인에 따른 CKL이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피험자 개인의 성격도 화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를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 변인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CKL이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의 양상은 모국어에서 영향을 얼마나 받는가를 보려면 같은 사람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쓸 때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고의 미진한 점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영리, 「‘-르까’의 의향 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강현화,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호, 2007.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金廷恩,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대조 분석 -부탁화행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2호, 2010.
- 동신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화행에 대한 연구 -고급 학습자의 화행 전략과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소 남, 「한·중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경숙,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실패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명희,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 화행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42호, 2010.
- 이성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정화, 「사회적 변인에 따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실현 양상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48호, 2019(가).
- 이정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요청 화행 전략 실현 양상 -사회적 변인을 중심으로-」, 『중한언어문화연구』 17호, 2019(나).
- 임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요청 화행 대조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전정미, 「요청화행에 나타난 공손 전략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21호, 2007.

- 정일함, 「학습 환경이 요청화행 전략 및 표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효진, 「상황맥락에 따른 ‘씨’ 호칭어의 분석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채춘옥, 「한·중언어에서 요청 화행과 거절 화행의 대조연구」, 『중어중문학』 62호, 2015.
- 황정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거절 화행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Chu Wen Bo,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화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Blum-Kulka, S., “Learning to say what you mean in a second language: a study of the speech act performance of Hebrew second language learners”. *Applied Linguistics* 3(1), 1982.
- Blum-Kulka, S. and Olshtain, E.,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 (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1984.
- Brown, Penelope & Levinson, Stephen C., *Politeness: some universal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uang, Yan, *Pragmatics*(2n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Leech, G,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Trosborg, Anna,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s, complaints, and apolog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李軍·宋燕妮, 「使役性言語行為醒示語分析」, 『華文教學與研究』, 2004.

❖ ABSTRACT

A Study of Chinese Korean Learners Using the Requesting Speech Form Through a Comparison of Chinese Korean Learners and Native Speakers

Sun, Y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requesting speech form usage between Chinese Kore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by performing a thorough comparison of Korean native speakers, Chinese native speakers, and Chinese Korean learners. This study uses social distance and relative power as variables to identify the patterns in requesting speech form, and collects and analyzes the data through a discourse completion test. Statistics show that social distance and relative power affect the strategies implemented within requesting speech form. In particular, when the social distance of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is small, the situ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the power of the listener to be lower, and the politeness of the speaker is lower. In reality, the speaker shows lower politeness to the person whose power is the same as the speaker's, rather than the person whose power is higher or lower than that of the speaker. Compared with Korean native speakers, Chinese people who are learning Korean rarely use addressing terms such as “jeo, jeogiyo,” and have low awareness when using the mitigating device of request “-eulkka”. However, they use expressions of apology well in their requests, and sometimes they also us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which indicates an example of language transfer.

Key Words : Requesting speech form, Chinese Korean learners, Social distance, Relative power, Discourse completion test

■ 논문접수일 : 2021. 02. 10

■ 심사완료일 : 2021. 03. 14

■ 게재확정일 : 2021. 03. 15